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기관의 협력요인연구

- 직업재활센터와 독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

조영길 (한국장애인생활체육회)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 기관인 직업재활센터(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VRC)는 직업평가와 같은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주지만 독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CIL)는 중증장애인의 독립생활에 초점을 두게 됨으로 두 기관 사이의 협력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들 기관의 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이며 선택의 폭도 매우 좁아 고용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펼치려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들 기관의 설립 이념과 조직의 특성을 탐색 조사하여 이들 두 조직에서 다룰 수 있는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협력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증장애인 서비스 기관의 운영 방향을 조명한다. 둘째, 중증장애인 서비스 기관의 수행프로그램의 특징을 상호 비교한다. 셋째, 중증장애인 서비스 기관의 교류 시 필요한 분야의 우선순위를 구명한다. 넷째, 중증장애인 서비스 기관의 조직 운영에 대한 특징을 분석한다. 다섯째, 중증장애인 서비스 기관의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전국에 직업재활센터가 설치된 37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분야 종사자와 전국의 독립생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결과 총 183명의 응답 자료를 기초로 연구를 실행하였다.

연구모형은 직업재활센터와 독립생활센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①운영 방향, ②프로그램, ③인력구성, ④문제해결 ⑤일반적 사항을 티 검정(t-test)과 회귀분석,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재활센터 종사자는 장애인의 역할을 중시하는 한편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 영역을 선호하고 있다. 이상적인 직업재활 서비스 정도에 있어 직업재활센터와 독립생

활센터는 약 6:4 비율로 나타나 독립생활센터에서도 직업재활 서비스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독립생활센터 서비스 중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에 관한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 기관 수행프로그램의 중요성에 있어 독립생활센터 종사자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직접적 서비스와 사회적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을 중시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두 센터 간 교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우선순위를 구명하였는데 직업재활센터 종사자는 프로그램 교류, 직업평가, 자원발굴을 독립생활센터 종사자는 이용자의 직업훈련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각자 고유 프로그램 영역을 고수하면서 다양한 개입 전략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조직운영에 대한 특징에서 직업재활센터 종사자는 전문가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독립생활센터 종사자의 경우 당사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두 센터 종사자의 일반적 특징이 서비스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시설형태와 성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별도의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정부기금이 확보될 경우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에서 학력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정부 기금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기금 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섯째,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별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일수록 매우 민감하게 응답하였으며, 직업재활센터에서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중증장애인 문제해결에 대한 차이는 시설형태와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장애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두 센터 모두 지역 장벽 제거를 우선하여 제시한 것으로 분석되며, 독립생활센터 종사자의 경우 동료상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형태와 성별에 따라 교차훈련 서비스, 지원프로그램 신설, 네트워크 강화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향후 세부적인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 기관간의 협력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실천적 방안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려된다.